여성농악의 발생과 남원의 권번 문화

권은영(전북대)

〈목 차〉

1. 머리말
2. 남원 권번의 후신인 남원국악원
3.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와 남원국악원의 관계
4.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에 존속된 권번 문화
5. 맺음말

1. 머리말

농악은 신체를 표현수단으로 하는 공연예술이다. 공연자는 농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음악을 반주 삼아 진법을 펴고 춤을 추며 때로는 연극적인 행위를 한다. 이런 공연예술은 일정한 시공간 안에서 공연자의 현존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데에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공연예술인 연극에서, "배우는 연극의 핵심"이며 "다른 요소들이 없는 공연은 성립될 수 있지만, 배우 없는 공연은 불가능"[1]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연극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 바로 배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그만큼 연극의 요소로서 배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배우는 요소이면서 연극의 현존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농악에서도 공연자는 그 신체가 장면과 음향을

1) 안 위베르스펠트, 신현숙·유효숙 옮김, 『관객의 학교 - 공연기호학』, 아카넷, 2012, 233쪽.

www.kci.go.kr

만들며 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연극과 마찬가지로 공연의 현존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농악의 현장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봤던 거”라거나 “농사일 하다가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아서 두드리는 거”라고 하는 관객들의 말을 빈번하게 듣는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농악은 그만큼 대중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말의 이면에는 농악은 농사일을 잘 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문적인 공연예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근대적인 삶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굿문화’의 해체가 지속되자, 농악은 당대 대중들의 민속적인 감수성을 기반 삼아 연예적인 특성을 강화하고 근대 공연예술의 요소들을 접목하여 대중예술로서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바로 ‘연예농악’이라 할 수 있으며, 연예농악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여성농악이었다.[2] 여성농악은 1960~1970년대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공연주체들의 노력과 창조적인 욕구 표현의 한 발로로서 전문성을 갖춘 대중예술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여성농악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장과 가설무대에서 농악, 판소리, 잡가, 전통 무용, 창극 등을 공연했던 여성공연자 중심의 흥행단체이다. 1960년경에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자, 기존에 있었던 남성공연자 중심의 포장걸립패들은 흥행 경쟁에 밀려 줄줄이 해산되었다. 당시 남성 포장걸립패들은 수십 년 씩 농악을 연행해온, 농악계의 최고 실력자들이었고 이는 해방이후 경연대회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다. 여성농악이 이처럼 흥행 면에서 남성 단체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성’공연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 즉 남성들만의 공연 영역이었던 농악에 여성들이 등장했다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대중들의 호기심만으로는, 20여 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여성농악 활동의 저력과 단체가 해산된 이후 여성농악 출신 인물들이 공연자와 교육자로서 농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해낼 수 없다.

---

2) 권은영, 『여성농악단 연구』, 전주: 신아출판사, 2004, 참조.

www.kci.go.kr

앞에서 공연예술에서 최소의 단위는 바로 배우이며, 배우는 공연의 현존 그 자체를 이룬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농악에 이 말을 대입해 보면, 이는 곧 여성농악을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여성농악 내에서 공연자가 지속적으로 양성되었다는 것이며, 이들은 단체가 해체된 후에도 자립하여 활동할 수 있었고 농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뛰어난 공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성농악의 흥행과 지속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공연자들의 공연 능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의 경력을 갖추고 당대 최고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남성농악인들을 단박에 대체할 수 있었던 여성농악 공연자들의 역량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여성농악 공연자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출현한 존재들인가? 여성농악의 공연은 그렇게 짧게 집중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다음의 두 가지를 단초로 삼을 수 있다.

첫째는 여성농악을 처음 탄생시킨 곳이 남원국악원이며, 초기의 단체들이 대부분 각 지역의 국악원을 거점으로 삼아 만들어지고 활동했다는 점이다. 권번은 일제강점기부터 기생들의 예능 교육과 활동을 담당했던 조직체로서, 기생뿐 아니라 판소리 창자와 기악 연주자, 무용가 등 민속 예술 전반의 공연자들이 간여했던 곳이었다. 당시 국악원은 권번의 후신으로서 권번의 기능과 습속을 계승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여성농악의 핵심 공연종목이 호남우도농악이라는 점이다. 호남우도농악은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익산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그 공연자들 중에서 세습무계 출신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선행 자료들과 연구들에서 우도농악은 '재인들이 만든 농악'[3]이라는 점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곧 여성농악이 지역의 마을농악을 점진적으로 무대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습 무계 출신 전문 예능인들이 보유했던 농악을 수용함으로써 마을농악의 공연 전통과는 다른 전문공연단체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농악은 공동체 내 일련의 의례들과 연관되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마을농악과는 다른 지향성을 갖는다. 그 지향성이란 예술적인 완벽성을

3) 이영금·이영배, 『전라도 윗녘 사람들의 무풍속』, 민속원, 2012, 219~229쪽 참조.

www.kci.go.kr

추구함으로써 '흥행의 성공'이라는 대중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악의 공연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자족감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넘어선 고도로 기예화된 공연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마을농악과 이들을 차별화하는 핵심지점이 된다.

필자는 1960, 70년대 대중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거둔 여성농악의 성공 요인으로서 여성공연자들의 예술가적 자질과 우수한 공연능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적 전문성은 권번 문화와 전라도 무(巫) 문화가 함께 작동되는 시스템 속에서 배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면상의 이유로 전라도 세습 무계와 여성농악과의 관계는 다음을 기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우선 여성농악과 권번 문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농악은 남원 권번의 후신인 남원국악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우선 남원 권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국악원으로 변모하였는가를 볼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농악의 발생과 전개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와 남원국악원의 관계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여성농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권번의 문화를 입문과 학습, 자격시험과 성년식, 공연활동과 춘향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남원 권번의 후신인 남원국악원

남원국악원은 일제강점기에 생겨났다가 해체된 남원 권번의 후신으로 남원 권번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당시에 남원국악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여성공연자들은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생'으로서 인식되었고, 기생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오던 관기제도가 폐지되고 1908년 경시청령으로 발포된 '기생단속령'에 따라 모든 기생들이 조합에 가입해야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기출신 기생들은 기생조합을 설립하였고 1914년에 이 기생조합이 권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4] 권번은 등록된 기

4)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카이브북스, 2005, 26~27쪽 참고.

www.kci.go.kr

생들을 관리하면서 기생들에게 요릿집이나 잔칫집의 놀음을 알선하고 그 대가인 화대(놀음차)를 받는 연예기획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5] 권번은 기생들에게 예능을 전수하는 예능교육기관이기도 했는데 판소리와 무용뿐 아니라 상식, 서예, 한문 등 교양에 관련된 과목과 예절을 함께 가르쳤다고 한다.[6]

20세기 초에 "호남의 권번은 전북의 경우 남원, 전주, 정읍, 군산"에 설립되었고 "호남에서 권번이 생긴 지역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기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만한 여유 있는 지역"이었다.[7] 권번은 대체로 그 지방의 돈 많은 한량들이 사비를 모아 문을 열었고, 전국에서 소문난 국악인들을 초빙하여 지도선생으로 임용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운영위원이 되어 운영하였다. 판소리는 남성 위주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권번의 학습생들은 여자들이었지만 선생은 모두 남자들이었고, 권번은 전국의 명창들이 모이는 장소였다.[8] 남원 권번 또한 대체로 이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었다. 예술의 소비자이면서 예술가를 후원하는 사람인 후원자(patron)들이 있어 이들이 국악원의 '이사'로서 운영에 참여하였고, 남성 실기인들이 실무 주체인 국악원장 및 예능 종목의 지도 선생이 되었다. 여성공연자인 '기생'이 권번에 소속되어 있었고, 데뷔 이전의 어린 학습생인 동기(童妓)들이 있었다.

후원자들은 권번을 오가며 기생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재력과 예술적 감식안이 있는 이들로, 소위 '한량(閑良)'이라 불렸다. '한량'은 사전적인 의미로 "일정한 직사(職事)가 없이 놀고먹던 말단 양반 계층"을 의미하지만, 20세기 중반 남원의 한량들은 정치가, 신문기자, 치과병원장,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인으로서 나타난다. 이들은 토지 자본을 바탕으로 남원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호(土豪) 세력으로서 예술을 즐기고 예술가들과 교류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다.[9] 이들은 권번의 남성 실기인들을 선생으로 두고 풍류나 고법 등을

---

5) 이경민, 위의 책, 27쪽; 신현규, 『기생 이야기 - 일제시대의 대중스타』, 살림, 2007, 21쪽 참고.

6) "그때 권번은 소리만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도(婦道)를 닦는 데는 권번 출신을 따라갈 수 가 없어요. 기생들이라고 해갖고 천대하고 뭐 허고 그랬지만 여자로서 갖춰야할 예의나 상식, 교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름 있는 권번들은 서예 가르쳤죠. 소리 가르쳤죠. 무용 가르쳤죠. 예절 가르쳤죠. 한문 가르쳤죠. 다 가르쳤거든요. 그걸 완전히 배워가지고 묵화 한 장 칠 줄 모르면 기생축에 들어가들 못했어요."(박재윤2001. 5. 25 남원국립민속국악원 김선태 김정헌

7) 권도희, 위의 논문, 19쪽.

8) 김익두·전정구·최동현·최상화, 『정읍지역 민속예능』,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2, 160쪽.

www.kci.go.kr

배웠고, 권번의 운영에 개입하고 공연자들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권번 기생들의 연행인 '놀음'의 실질적인 소비자였고 지역의 정치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권번의 운영에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해방 이후 권번이 제도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남원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권번의 직능을 대신할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후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국악원 창립을 모색하였다.

> 애당초 국악원을 시작한 것은, 이일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주천면 고기리라고 있어. 그분이 애당초 각 요정에… 그때만 해도 전부다 색시들을 두고 사업을 했거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애. 남원엔 다 있었어. 옛날엔 남원에는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됐어. (국악원) 시초는 이일우란 분이 거기서 인자 소리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것을 한번 맨글라고 했는디, 되는 것이간디? 각 요정에서 안주접시 하나씩 갖구 오라구 해갖고, 먹으면서 맨글라고 거기서 애당초 구상을 했어. 했는데 되다가, 그분은 소리를 못해. 아주 부자집 아들이라, 이일우란 분이. 다 망해버리고 없지마는. 저 남원에 신정동이란데, 왕정동. 거가서 조광옥씨가 있어. 조광옥씨 여동생이 조금앵이라구 아주 소리를 잘 하는 분이라. 거 아주 유명한 분이여, 소리 잘 허는 분이여. 그 오빠가 조광옥 씨라고 그 분을 원장을 시켜 갖고, 명기호텔 앞에 집을 하나 얻어갖고 김영운씨, 그분을 강사로 두고 인자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나는 광주에 한 일년 있다가 오니까 그 분이 국악회를 조직을 했어. (중략) 이영신 씨가. 그 분이 회장을 하고 내가 그때 총무를 해갖고 인자. 말하자면 김영운씨가 국악원장을 해도, 이게 생계가 안 되잖아. 우리 회원들을 모집을 해갖고, 거기서 회비를 걷어갖고, 말하자믄 그 선생…그래서 우리가 회를 조직했었거든.[10]

위에서는 해방 후 권번이 해체되고 나서 국악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상황을 말해준다. 당시에 남원에서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활동 터전이 되는 곳이 바로 요정이었다. 요정의 입장에서도 소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요구가 맞물려 당시 남원에서 국악을 하는 사람은 으레 요정에 나갔고, 요정에서는 유흥의 하나로서 국

9) 『이야기로 듣는 남원국악사』, 국립민속국악원, 2008, 참조.
10) 강영수 구술, 「강영수 구술 채록」, 『이야기로 듣는 남원국악사』, 국립민속국악원, 2008, 9쪽.

www.kci.go.kr

악을 공연했다. 그리고 요정을 이용하는 남원의 유지들과 한량들이 국악의 소비자이면서 후원자가 되었다. 이들 중 이일우란 사람이 실기인 조광옥과 김영운을 각각 국악원장과 소리 선생으로 삼아 권번의 기능을 잇게 하였다. 그 후 이영신과 강영수가 회장과 총무직을 맡아 국악 동호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근대 교육을 받은 국악 동호인들은 권번이 구시대의 산물이며 폐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국악원'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하였다.

> 인자 그 권번도 없어져버리고 해방 후에 50년도에 서울 국립국악원이 안 생겼습니까. 50년도 전쟁 당시에 부산서 개원식을 했거든요. 직제가 통과가 되어갖고. 그러니까 인자 국립국악원이 서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이 국악원이구나 그래서 남원서 국악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국악원이, 서울국악원하고 여기하고 같이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권번이란 이름도 듣기 싫어라 하고 그러니까 인자 국악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번 출신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라 하고 권번 소리를 안 들어야겠다 하는 찰나에 서울에서 국립국악원을 만드니까 얼싸 좋다 해갖고 국악원이라고 간판을 붙였죠. 권번이 없어지고 나서 해방 직후에 조광옥 씨라고 하는 분이 초대 원장인디 이환량 씨가 2대 원장이에요. 이환량씨가 여성농악단을 만들었는데, 조광옥이라는 그분이 가야금도 만들고 그분 집안이 아주 국악으로 대가들이에요.[11]

1950년 1월 19일 국립국악원 직제가 공포(대통령령 제 271호)되었고 1951년 4월 10일에 국립국악원이 개원하였다.[12] '권번의 문화', '기생들의 문화'라는 국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떨쳐버리고자 했던 남원의 국악 동호인들은 '남원국악원'이라는 명칭으로 국악학원을 열고 초대원장을 조광옥으로 하였다. 조광옥은 명창 조금앵[13]의 친오빠이기도 하며 국악을 세습하던 집안 출신이었다. 이 국악원에 김영운을 소리 선생으로 삼아 월급을 지급하였고 판소리 교육을 장려했다. 한편으로 권번의 문화적 풍습을 타파하고 국악 교육 기

11) 박재윤 구술자료, 2001. 5. 25,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조사자 : 김선태, 김정헌)

12)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13) <남원여성농악단>의 창단 멤버인 김정화(예명)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광옥의 여동생 조금앵은 여성국극의 명인 조금앵과 동명이인이라고 하였다(김정화 구술자료, 2015. 10. 31. 김정화 자택).

www.kci.go.kr

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국악원이 개원한 이후에도 권번의 습속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국악원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받고 판소리를 가르쳤지만 수요가 미미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권번은 또한 교육의 기능뿐 아니라 공연 매니지먼트 역할을 했는데, 이 직능을 맡아할 수 있는 대체 조직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개칭 이후에도 국악원은 여전히 권번 시절의 교육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용하였다. 이런 상황은 남원에서 여성농악 단체가 생겨나 사라질 때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와 남원국악원의 관계

1) 여성농악의 시초, 〈남원여성농악단〉

여성농악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의 구술과 기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14] 여성농악이 남원국악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모두 일치한다. 국악협회 전북지부의 '전북 농악단 등록서'에는 "남원여성농악단은 도내 다른 농악단 중 가장 먼저 1959년 1월에 남원읍 동충리에서 이기태 씨를 단장으로 하여 창립"되었으며, "남원 국악학원장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5] 이에 따르면 <남원여성농악단>의 공식적인 창단 시기는 1959년 1월로 볼 수 있다.

<남원여성농악단>(이하 <남원…>)은 최초의 여성농악단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활동 기간 및 공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6.25 전쟁 이후 복구 상황에서 국악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시 남원국악원장인 이환량과 판소리 선생이면서 농악에 조예가 있던 주광덕이 국악원의 여성원생들에게 농악을 가르쳐서 '마당밟이' 식의 공연을 나서게 되면서 여성농악단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

14) 권은영, 앞의 책, 25~27쪽 참조.

15) 전북예총사 편찬위원회, 『전북예총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회, 2000, 1056쪽.

16) 권은영, 앞의 책, 28쪽.

www.kci.go.kr

지금에 와서 국악원은 국악 공연과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립'이나 '시립' 등의 관립 단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시 남원국악원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국악을 교육하는 사설 국악학원이면서 동시에 요릿집인 요정이나 잔칫집 등에 공연자나 공연팀을 대주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을 하였다. 학원생에게서 받는 교육비와 공연 중개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던 남원국악원은 1950년대 말에 수입이 적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금난을 해결할 목적으로 국악원의 원생들을 중심으로 농악단을 조직한 것이었다.

당시의 남원국악원 원장은 이환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환량 말고도 여성농악단의 창단에는 여러 인물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남원 출생으로 남원시립국악원과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초대원장을 역임했던 박재윤의 구술로서, 여성농악의 발생 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 주광덕이라는 그분하고 이환량 원장하고 애를 많이 썼죠. 그 주광덕씨가 농악을 깊이 연구를 했고 고인이 됐습니다만 기능이 보통 기능이 아니에요. 두 분이, 국악원을 운영하기가 곤란했었거든요. (중략) 협조가 그렇게 적고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곤란하니까 집도 못 얻어서 남의 셋방살이 하면서 참 복잡했었죠. 운영비를 좀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시작한 것이 여성농악단이에요. 처음으로 남원에서 생겼습니다.[17]

> 이환량 씨가 원장 되면서부터 농악을 가르쳐갖고 판소리하고 농악을 가르쳤지. 소리는 강도근하고 김영운이라고 김정문씨 조카, 농악은 이환량하고 김억득하고 가르치고. 전부 여자죠. 그래서 여성농악단이요. 가르쳐가지고 외부 공연은 나가도 못하고 남원 시내에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걸궁굿이라고 해가지고 마당볿이를 해주면 쌀도 내놓고 그러잖아요. 돈 내 놓고 적은 사람은 쌀 함지씩 내놓고 가운데다 촛불 켜놓고 굿 뚜들고 그랬어요. 그 쌀 팔아가지고 운영자금을 썼어요.[18]

위 구술에서는 당시 남원국악원의 원장이었던 이환량 외에도 여러 명의 사

17) 박재윤 구술자료, 2002. 5. 31, 남원국립민속국악원
18) 박재윤 구술자료, 2001. 5. 25,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조사자 : 김선태 김정헌)

www.kci.go.kr

람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 김영운은 명창 김정문의 조카로 남원국악원의 판소리 선생으로 있었다. 강도근 또한 남원에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김영운의 후임으로서 오랫동안 남원국악원의 판소리 선생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주광덕 또한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창 안숙선의 첫 번째 소리 선생님으로서, 뒤에서 살펴볼 <춘향여성농악단>(이하 <춘향…>)의 단장인 강금순의 집에서 방을 얻어 살며 소리를 가르쳤다고 하였다.[19]

위 박재윤의 구술에 따르면, 남원국악원이 운영난을 겪게 되자 운영비를 벌어볼 목적으로 여성농악단을 조직하였다고 하였다. 이때는 가설극장을 세워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남원 시내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걸궁굿이라고 해가지고 마당볿이"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모으는 정도였다.

그런데 남원국악원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여성단원들로만 농악단을 조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당시에 '기생양성소'로 여겨졌던 국악원에는 여성공연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공연자가 자연스럽게 농악단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다음은 당시 남원국악원의 원생이면서 <남원…>의 단원이었던 배분순의 구술이다.

> 그래갖고 (판소리) 공부를 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선생님을 불러갖고는 김병섭 씨라고, (응응 설장고 선생님) 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막 장구를 배우라고 허더라고. 그래갖고 막 장구를 배우고 산에 올라가서 공동묘지 있는데 가서 (양림단지?) 어, 양림단지. (물 건너) 거 가서, 막 남들이 시끄럽다고 헌게 거 가서 치고 내려오고, 치고 내려오고 헌데. (중략) 그래놓고는 막 한참 있드라고. 한참 있드니 선생님허고 몇 몇 간부님들허고 섞어져갖고 여수 오동도에서 오동도 그 안에 가갖고 매표를 해갖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겄다고. (그게 첫 번?) 첫 번이지, 인자. 맨 처음에. (중략)
>
> 노 : 그럼 혼합이야? 남자 여자 혼합?
>
> 혼합이지. 화자 아버지가, 김(영운) 선생님이 징을 치고.(에?) 징을 치고 (김영운 선생님이 키가 껑중헌디?) 하. 징을 치고 인자 남자 여자 혼합을 해갖고 그러고 쳤는디, 아 대박 났어. 오동도 다리에다가 매표소를, 딱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막아갖고 돈을 가마니에다가.
>
> 노 : 그때 여자는 누구누구였는디?

19) 안숙선, 「나의 이력서-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2」, 『전북일보』, 2005. 4. 11.

www.kci.go.kr

여자는 장홍도씨, 미국 가 있는 김난희, 다 흩어졌지. 김영순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흩어져갖고 찾을 길이 없어. (중략) 인자 선생님들이 짠 거야. 이걸 남자를 빼 버리고 (순수한 여자만) 순수한 여자 여성농악단을 맨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여자만 여자만 인자 농악단을 맨들었어. 20)

배분순은 남원 시내에서 행해졌던 마당밟이 형태의 공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원…>의 창단 멤버로서 자신의 체험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에 배분순은 남원국악원에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김영운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남원국악원에서 정읍농악의 장구잽이 김병섭을 농악 선생으로 모셔다가 원생들에게 농악을 가르치고 연습을 시켰다. 그 뒤에 남원국악원 농악단은 여수에서 포장걸립을 하여 흥행에 성공을 했고, 특히 여성공연자들이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자 국악원의 간부들은 여성들만으로 농악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여성농악단인 <남원…>이 결성되었다. 이때 상쇠는 장홍도로, 박재윤에 따르면 그녀는 명창 김소희와 견줄 정도로 뛰어난 판소리 실력을 갖추고 있어 그때 소리로서는 배울 것이 없었으며, 나이나 실력 면에서 “선생 노릇을 해야”할만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그는 남원의 국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남원…>의 주요 공연자로서 장홍도 외에도 강초운, 장성남, 오갑순, 안숙선, 나금추, 배분순, 안옥선, 이행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원…>은 1960년에 정읍농악과 함께 전라북도 대표로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당시에 여성농악단의 간부로서 단체를 함께 인솔했던 강영수의 구술이다.

박정경 연구사 : 여성농악단 올라간 얘길, 60년 3월 26일날.

강영수 : 그 때 이승만 박사가 생일, 탄신일인디. 그때 주최는 어딘가는 몰라도, 각 도에서 농악경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인자 정읍 남자농악대하고 나와선 남원농악대하고 전라북도에서만 두 팀이 올라갔어요. 그때 자유당에서 전부 인솔하고 갔었는데, 그 때 국회의원이 둘이 있었어, 갑구 을구

20) 배분순 구술자료, 2015. 8. 9, 배분순 자택, (조사자 : 노영숙)
배분순을 면담한 노영숙은 1960년대 <춘향…>의 단원이었다. 현재 그녀는 남원 지역 여성농악단에 관한 구술을 녹취하고 있으며, 필자는 이 일을 돕고 있다.

www.kci.go.kr

로 해서. 조정운 국회의원하고 안경석(?) 국회의원하구 거 둘이는 모르지마는, 그 분들이 인자 우리를 서로 자기들이 뺏아갈라고 말야. 그냥 이 표 땜시. 서로 잘 멕이구 할라고. 그런 거 호강도 많이 받아봤지마는.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일등을 했어. 일등을 해갖고 백만 원 타고, 우승기 타고 해갖고 있는디.[21]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 즈음에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하였는데 각 도에서 예선을 거쳐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농악과 <남원…>이 함께 출전하게 되었다. 남원을 지역구로 하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표 관리를 위해서 여성농악단을 서로 지원하겠다고 경쟁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농악경연대회에서 전라북도 팀이 우승을 하였다.

<남원…>은 뒤에 나온 <춘향여성농악단>에 비하여 활동이 적었던 것 같지만, 1960년 당시 이미 전라북도를 넘어 여수와 마산 등 여러 곳을 돌며 공연활동을 하였다. 다음은 당시 4.19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마주쳤던 배분순의 기억이다.

그래가지고 농악단을 딱 맨들어 노니까 막 여그저기서 막 불러제껴. 여 임실 끝나고 나면 저그 황도, 황령, 어디 이리 (황등) 어, 황등 (이리 황등) 또 거그 끝나고 나면 삼례, 딱 그러면 이 놈의 굿이 깽번으로만 돌아. 깽번에 포장을 치고 (아 저기 강변에?) 어. (자갈 있는 데 거기?) 응. 거기다 인제 포장을 쳐놓고 매표소를 그 포장에서 해놓고. 그래가지고 마산 공연을 갔는디, 마산 가닌게 막 어디서 돌이 왔다갔다 허고 난리더라고.(돌이?) 공연을 허고 있는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4.19여. (아, 4.19가 난 거야?) 4.19가 나갖고 막 그래갖고 포장을 막 쌔리 걷어가고, 우리가 막 도망을 댕기고 죽을까 싶어서 막 "뛰어라, 뛰어라!"허고 막 간부님들이 난리를 허고.(마산에 가서 공연을 하는디 4.19가 났어?) 어, 마산에 가서. 그런 꼴도 당했고만. [22]

최초의 여성농악단체로서 이름이 알려지자 <남원…>은 임실, 익산 황등, 완주 삼례, 마산 등 여러 곳을 다니며 공연을 하였다. 매표소를 갖춘 가설극장은 주로 강변의 공터에 짓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에 마산에서 공연을 하던

21) 강영수 구술, 「강영수 구술 채록」, 『이야기로 듣는 남원국악사』, 국립민속국악원, 2008, 10쪽.
22) 배분순 구술자료, 2015. 8. 9, 배분순 자택, (면담자 : 노영숙)

www.kci.go.kr

중에 4.19를 맞게 되었고, 돌이 날아다니는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남원…>의 공연 종목과 형태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제보자들이 공연 내용 면에서 <춘향…>과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두 단체의 공연 종목이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남원…>과 <춘향…> 두 단체의 단원이었던 판소리 명창 안숙선의 회고인데, 당시 여성농악단의 공연 풍경과 공연 종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나는 9세부터 전국 공연을 다녔다. 남원국악단의 전국 순회공연을 다 다녔는데, 가까이는 진주에서부터 부산 서울 등 전국을 누비며 다녔다. 당시 우리는 공연용 하얀 장막을 치고 공연을 했는데, 전깃불이 없는 곳에서는 횃불을 세워 놓고 공연했다. 우리 공연을 보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 입장료를 가마니에다 받기도 할 정도였다.
>
> 당시는 내 나름대로 뜻을 세울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 어른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따라다녔을 뿐이다. 나는 농악대 설장고를 굉장히 귀엽게 잘 쳤다고 들었다. 당시는 창극을 하면 전막을 하는 게 아니라, '방자 막'이면 방자 막 부분만 했는데, 춘향과 방자가 노는 대목에서 나는 방자 역할을 했다. 방자 역을 한 뒤 민요를 하고, 독창하고, 어떤 때는 어른 장단까지 쳐준 기억이 있다. 강도근 선생이 내 북에 맞춰 소리하기도 했다고 들었다.[23]

위 글에서는 여성농악단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국악단이 바로 <남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몇 년의 사이를 두고 활동했던 <춘향…>에 관한 기억도 혼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남원…>은 전국을 순회하였고, 하얀 포장을 친 극장에서 전깃불이나 횃불을 조명으로 삼아 공연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여성농악단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입장료를 가마니에 받아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공연종목으로는 농악, 민요, '방자막'과 같이 단막을 연행하는 토막창극, 강도근과 같은 소리꾼의 판소리 공연 등이 있었다.

이후 <남원…>을 선례 삼아 부안, 전주, 정읍, 김제 등에서 여성농악단이 다수 만들어지면서 여성농악이 양적으로 확산되었다. <남원…>은 활동하기

23) 안숙선, 「나의 이력서-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3」, 『전북일보』, 2005. 4. 13. 전북일보 홈페이지 http://www.jjan.kr/

www.kci.go.kr

좋은 상황일 때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다녔고, 공연을 쉴 때에는 다시 남원으로 돌아와 국악원에서 학습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1년여 후 <춘향…>이 생겨 주역을 맡았던 단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남원…>은 흥행단체로서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후 활동이 미미하기는 하였으나 남원국악원에서 소리를 수학하고 있는 원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잠깐씩 단체를 구성하여 1960년대 중반까지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여성농악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춘향여성농악단〉

<춘향…>은 <남원…>보다 1년 여 늦게 생겼지만 여성농악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단체였다. 『전주예총사』에서 <춘향…>은 "남원읍 천거리 12번지에서 1960년 10월에 강금순 씨(당시 41세)를 대표로 하여 창립됐다."고 기록되어 있다.[24]

제보자들은 <춘향…>의 창설자를 판소리 명창 '강도근의 친여동생', '칠선옥 주인', '오갑순의 양엄마' 등으로 불렀다. 그녀는 『전북예총사』와 『판소리 이백년사』에서는 '강금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양딸인 오갑순의 인터뷰 기사에는 '강선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25] <춘향…>의 단원이었던 박복례에게서도 칠선옥의 주인 이름이 강선화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였다.[26] 여러 제보자들에 따르면 그녀가 수양딸들에게 가야금과 병창을 직접 가르쳤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녀 또한 예인의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칠선옥 주인은 본명 외에도 활동명으로서 예명(藝名)을 썼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칠선옥 주인의 본명은 '강금순'이며, '강선화'는 그녀의 예명일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강금순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춘향…>이 어떤 단체이며 어떤 활동을 이어갔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강금순이 어떤 사람이고, <춘향…>의 활동의 근거지였던 '칠선옥'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강금순은 강도근의 친여

24) 전북예총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056쪽.
25) 권은영, 앞의 책, 38쪽, 각주 37) 참조.
26) 박복례 구술자료, 2015. 7. 30, 박복례 자택, (조사자 : 노영숙)

www.kci.go.kr

동생으로서, 진주 검무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자 가야금의 명인인 강순영, 대금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강백천과는 사촌지간이었다. 그리고 현재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자 판소리 명창인 안숙선의 사촌 이모이고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강정열의 육촌고모이기도 하다. 이처럼 강금순은 쟁쟁한 예인들을 배출한 집안 출신이다.

1950년대의 강금순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기생으로, 보절면의 0씨 부자 영감하고 살림하고 살면서 시장 가운데서 자그마하게 요정을 했다"고 하였다. 판소리 명창 주광덕이 세를 내어 지냈다고 하는 집도 강금순의 집이다. 남원농악 보유자인 유명철은 칠선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 칠선옥이란 강도근 선생 여동생이 칠선옥이란 조그만한 요정을 해. 거기서 사람들 많이 키웠어. 아까 오갑순이 안숙선이 모다 다들 그 집에서 밥 먹고 큰 사람들이여. 말하자면 요정도 아니고 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술장사도 그렇게 안 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방 여러 개 있고, 손님 방이 여러 개 있는디, 술장사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 간판은 칠선옥이라고 붙였어. 애들 키우고 노래 가르치고 거기서 그랬어. 그런디 가들도 본래 국악원 생이야. 그러다 농악 요것을 가르치면서부터 쪼개져 나와 버렸어. 우리 식구만도 되겠다 그런게 나와 버린거야.[27]

위에 따르면 강금순은 규모가 작은 요정인 칠선옥을 운영하면서 국악 교육에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 <춘향…>의 단원이었던 박복례와 노영숙에 의하면 강금순은 4명의 수양딸을 두었는데, 이들 중 오갑순은 1970, 80년대 방송과 음반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 강금순은 수양딸들에게 가야금과 병창을 가르쳤으며, 안숙선 또한 강금순에게 가야금을 배우기도 했다. 강금순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순영에게 가야금과 병창을 배웠다는 제보를 듣기도 하였는데, 아마도 '상전(相傳)'이라는 전통예술의 전승 방식에 의한 것이리라 생각한다.[28]

---

27) 유명철 구술자료, 2002. 10. 8, 남원농악전수관

28) 최병호는 '상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에는 스승 제자가 없고 전부 상전이여. 서로 상(相)자 전할 전(傳)자. 자동으로 전하게

www.kci.go.kr

칠선옥에서 가야금을 배웠던 이들은 또한 남원국악원의 원생들로서 <남원…>의 단원이기도 하였다. <남원…>의 활동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강금순은 여성농악의 흥행에 확신을 갖고 <춘향…>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강금순이 <춘향…>을 만든 표면적인 이유는 <남원…>에서 양녀 오갑순이 다른 공연자와 수장고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금추 또한 <춘향…>에 대해 질문하는 필자에게 "오갑순이 양엄마가 오갑순이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 "오갑순이 단체다."라는 말을 직접 해준 적이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금순이 <춘향…>을 조직하게 된 강력한 동기는 아마도 "입장료를 가마니로 쓸어 담아야 할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 여성농악의 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50년대 여성국극단과 1년여 앞서 활동을 시작한 <남원…>을 통해서 여성공연자에 대한 대중들의 환호를 이미 확인한 강금순은 대중공연 단체로서 <춘향…>을 조직하였다.[29] 당시 농악은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거창한 명목 하에서 육성되거나 장려되기 이전에,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대중오락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강금순은 공연 사업의 좋은 아이템으로서 농악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읍농악의 전사종과 김병섭을 꽹가리와 장구 선생으로 각각 스카우트 하여 단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농악을 가르쳤다.

<춘향…>이 창단할 당시 수버꾸를 맡고 있었던 박복례는 당시 <춘향…>의 구성원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상쇠 강초운은 기혼녀로서 자녀가 있었고, 그녀를 제외하고 오갑순과 나금추는 17~18세, 안숙선은 10세 정도였으며, 소고잽이들은 7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되어 있어. 왜냐면 세습무라는 것은 세습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연이 나오잖여? 음악가 밑이서 음악가 생기잖여? 태어나서부터 그것을 감상을 히갖고, 세습무 밑이서 나오면 자연히 그렇게 되야. 자제들은 신동들이 많이 생겨. 자연히 알게 되어 버려. 타고 나거든." (이영금·이영배, 앞의 책, 231~232쪽)

29) 박재윤에 따르면 강금순의 오빠인 강도근은 "송만갑 씨 협률사 만들고 공연하고 다닐 적에 그 출신"으로서, 박재윤은 강도근을 "창극장수"라고 표현하였다.(박재윤 구술자료, 2001. 5. 25,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조사자 : 김선태 김정헌) 당시 대중공연의 한 분야가 되었던 창극계에서 얻은 강도근의 경험은 흥행단체인 여성농악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www.kci.go.kr

불구하고 <남원…>에 비해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데에 우위를 차지하여 남원을 대표하는 여성농악단으로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 주광덕 씨라고 하는 분이 장구도 치고 국악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구파는 가르친 거야. (중략) 59년도에 본래 구파를 사가지고 춘향여성농악단이라는 간판을 걸고 최초로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최초로 전국을 누빈 포장걸립 하는 팀이 그 사람들이다. 그것을 꾸민 사람은 칠선옥 주인이다. 강도근 선생 여동생. 이환량 씨가 본래 했던 것은 남원에서만 치고 말았고, 남원 춘향여성농악단이 전국을 누비는 여성농악단 중 제 일번이고 걔들이 판을 치고 다니니까 전주 사는 이방근 씨가 아리랑 여성농악단을 만든 거야.[30]

위에서 가리키는 '구파'는 <남원…>을, '신파'는 <춘향…>을 가리키는데 두 단체를 비교해 볼 때, "이환량 씨가 본래 했던" <남원…>은 "남원에서만 치고 말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외부인이 볼 때 활동이 많지는 않았다. 반면 <춘향…>은 "전국을 누비는 여성농악단 중 제 일번" "걔들이 판을 치고 다니니까 전주 사는 이방근 씨가 아리랑 여성농악단을 만든 거야"라고 평가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춘향…>은 1961년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 경연대회의 전라북도 예선전에 참가한 <춘향…>은 남성 포장걸립패인 <금산농악 최상근 일행>과 함께 전라북도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덕수궁에서 있었던 본선에 출전하였다. 이 대회에서 전북 팀은 일등을 하였고, <춘향…>은 "아직은 하나의 시도라 하겠으나 꼬마 이춘화(7) 양 외 2명의 농부가와 오갑순(18)양 외 2명의 장고는 장래가 촉망되는 열연이다."[31]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비원에서 기록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이들의 기사가 뉴스로 방영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196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춘향…>의 단체사진[32]

---

30) 유명철 구술자료, 2001. 5. 15 남원농악전수관, (조사자 : 김선태, 김정헌)

31) 「장고의 신동 등장」, 『동아일보』, 1961. 9. 29, 권은영, 앞의 책, 42쪽 재인용.

32) 서있는 사람은 왼쪽부터 김금순, 나금추, 000, 강초운, 주영숙, 이희숙, 오갑순, 000, 오00, 박복례, 안숙선, 000, 전사종, 000이며 앉은 사람은 왼쪽부터 정정순, 안00, 이행화, 전금자, 양명희, 000, 000이다. 박복례 구술자료, 2015. 7. 30, 박복례 자택, (조사자 : 노영숙)

www.kci.go.kr

으로 현재 박복례가 소장하고 있다.

1961년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춘향여성농악단〉의 단체사진

위 사진에서 서 있는 이들 중 왼쪽에서 네 번째가 상쇠 강초운이며 여성농악의 대표 상쇠 나금추, 판소리 명창 안숙선, 대중적인 국악인으로 유명한 오갑순, 정읍농악의 전사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쪽에 나란히 앉아 있는 소고잽이들은 당시에 7~8세의 어린 나이로, 사진을 통해서도 앳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어린 소녀들이 공연자로서 뭘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회고들을 보면, 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이미 공연자로서 자신의 한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느 시골 극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극장이래야 의자도 없이 땅바닥에 신문을 깔고 앉아 구경하는 공간이었으니 무대 상태는 오죽했으랴. 창극과 춤, 소리 공연을 마치고 제2부 농악을 공연할 때였다. 나는 장고를 메고 좁은 공간을 번갯불이 휙휙 날 정도로 돌고 있었다. 그런데 아뿔사, 너무 욕심을 부렸던지 어느 순간 무대 밑으로 휙 떨어져 객석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깜짝 놀란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하늘의 도우심인지 장고는 박살이

www.kci.go.kr

났건만 내 몸은 어느 한 곳 다친 데가 없었다. 나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다시 무대에 올라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새 장고를 들쳐 메고 다시 무대에 올라 정신없이 공연을 마쳤다. 관객들이 일제히 꼬마 잘한다는 함성과 함께 "어른들도 숙선이 본 좀 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잊지 못할 기억이다.[33]

10대 초반의 안숙선은 농악의 장구, 창극의 방자 역, 민요와 판소리의 창자, 북 반주자 등 어린 나이에 이미 여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글을 앞에서 인용한 바 있다. 위의 글은 무대에 대한 그녀의 집중력을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이다. 메고 있던 장구가 박살이 날 정도로 심하게 무대에서 떨어졌으나 장구를 다시 메고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마쳤던 기억은 공연자 개인에게는 슬프고 대견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대가 요구하는 프로페셔널의 태도를 10대의 소녀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화이기도 하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으며 대중들을 몰고 다녔던 <춘향…>의 호황은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주역을 맡은 핵심 단원들의 탈퇴 때문이었다. '오갑순 단체'라고 부를 만큼 <춘향…>의 결성과 인기에 큰 몫을 했던 오갑순이 먼저 서울로 상경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농악보다는 기악, 기악보다는 판소리를 더 우위로 인정하는 전통공연계의 관행에서 안숙선을 비롯한 주요 단원들이 판소리와 가야금 등에 매진하면서 단체를 그만두었다. 처음 징잽이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상쇠가 되었던 나금추도 미국 공연을 준비하러 서울로 갔다가 공연이 무산되면서, 전주 단체인 <아리랑여성농악단>에 스카우트되어 <춘향…>을 떠났다. <남원…>이 생겨난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생겨난 다른 여성농악단들과의 경쟁도 단원 확보와 단체 운영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1961년 국악협회 전북지부에는 6개의 여성농악단체가 등록[34]되어 있었는데, 이 단체들끼리의 흥행 경쟁이 심해지면서 개런티에 따라 공연자들이 옮겨 다녔다. 처음 조직 당시에 칠선옥의 수양딸들과 남원국악원 원생들만으로도

33) 안숙선, 「나의 이력서-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7」, 『전북일보』, 2005. 4. 27. 전북일보 홈페이지 http://www.jjan.kr/
34) 전북예총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054쪽.

www.kci.go.kr

공연단을 구성할 수 있었던 <춘향…>조차도 단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타 단체 출신의 공연자를 영입하였다. 다음은 <춘향…>의 단원이었던 노영숙이 소장하고 있는, 1967년 5월 1일 해인사에서 촬영한 해산되기 직전 <춘향…>의 단체 사진[35]이다.

1967년 해인사에서 촬영한 〈춘향여성농악단〉의 단체 사진

위 사진에서 맨 오른쪽 한복을 입은 노인이 대금 명인 강백천이며,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춘향…>의 창설자 강금순이다. 상쇠 장영숙과 설장고 권금미, 이옥주, 권은미 등의 주요 공연자, 그리고 총무 권후엽과 그의 아내는 전주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춘향…>에 합류하였다고 한다.[36]

35) 서있는 사람은 왼쪽부터 손해천, 강병철(새납), 정점수, 한종식(단장), 이행화, 강금순, 이옥주, 권은미, 권금미, 양정남, 권후엽 아내, 장영숙(상쇠), 권후엽, 강백천이다. 앉아 있는 사람은 왼쪽부터 배순애, 노영숙, 000, 강선희, 정금난이다. 사진을 찍을 때 구성원 중에 몇 명은 빠졌던 것으로 노영숙은 기억하고 있었다.(노영숙 구술자료, 2002. 7. 13, 노영숙 자택)

36) 노영숙 구술자료, 2002. 7. 13, 노영숙 자택

www.kci.go.kr

그러다 1968,9년 경 <춘향…>은 부산에서 단체 해산을 결정하였고, 당시 농악단의 학습을 담당하였던 강백천과 그의 일가는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4.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에 존속된 권번 문화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에 권번 문화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남원 권번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일제강점기의 남원 권번에 대해서는 민살풀이의 명인 조갑녀의 생애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내용을 알 수 있다. 조갑녀는 1923년 남원 출생으로 1929년에 남원 권번에 입소한 뒤 1942년까지 남원 권번의 대표적인 예기로서 활동한 인물이다. 조갑녀와 그 딸의 증언을 자료로 한 논문[37]을 통해 남원 권번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문, 학습, 자격시험, 활동으로 나누어 글을 인용하였다.

입문	조갑녀의 부친 조기환과 조갑녀의 고모 조기화는 남원시 쌍교동 140번지 남원 권번에서 활동하면서 학습생들에게 악기 연주와 전반적인 예능 교육을 직접 지도하셨던 전문 예인으로 초창기의 춘향제 행사를 주관하고 후원하셨던 분들이었다. 조갑녀의 부친 조기환과 고모인 조기화는 남원 권번의 소속으로 초장기 남원 춘향제 행사를 진두지휘한 국악 집안이었다. 조갑녀를 어렵게 얻은 아버지는 딸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를 잘 따르는 조갑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권번에 자주 놀러갔었다고 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집안 환경덕분에 7~8살 무렵 권번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습	그 당시 나이가 어려 선생님들의 함자(銜字)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남원 권번장인 이백삼 할아버지셨고 권번의 선생님은 네다섯 분정도 계셨었다. 동기생으로는 열살 안팎의 30명 정도 되었고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엄격한 예절교육과 시조, 춤, 기악, 북, 궁도 등 기본교육은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고된 학습을 하였다. 조갑녀 부친 조기환은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이고 지도자였지만 춤을 유난히 좋아하셨고 춤에 관심이 깊었기에 딸(조갑녀)에게 훌륭하신 선생님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애쓰셨다. 조갑녀 부친께서는 지금의 전남 곡성 옥과(玉果)출신의 이장선(산)선생님을 직접 남원 권번으로 모셨고 조갑녀의 동기(童妓)들과 궁중무와 검무를 배우게

37) 임유경, 「명인 조갑녀의 무용 생애사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1, 27~28쪽.

www.kci.go.kr

	해주셨다. 이장선(산)선생님께서 영숙이(조갑녀 예명) 몸에 춤이 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별도로 교육을 해주셨는데 남원시 금동 29번지 조갑녀의 집에서 이장선(산)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있으면서 집 앞마당에 덕석을 깔고 민속무, 승무를 이장선(산)선생님께 직접 지도받게 되었다.
자격시험	남원 권번 선생님들께서 모두 자리를 같이 하신 날 이장선(산)선생님께서 직접 연주를 해주시면서 승무를 추어보라고 하셨고 장삼을 벗고 살풀이장단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추어보라고 하셨다. 그 날 남원 권번 선생님들께서는 역시 타고난 재주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그 후 부친 조기환과 이장선(산)선생님 덕택에 조갑녀는 10세의 어린 나이로 타고난 춤 재주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권번에서 학습도 하고 예인으로서 활동도 하게 되었다.
활동	당시 남원 권번에 30여명의 학습생이 있었지만 예기는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예기 중에서도 스타였던 조갑녀는 하루하루 쉬지 않고 바쁘게 활동하였다. 남원에서는 1931년 6월 20일(음력 5월 5일 단오)를 1회로 시작되는 춘향이 제사를 남원권번의 기생들과 타 지역 기생들이 참석하여 남원권번 내에서 1~3회까지 춘향제사를 지냈다. 춘향제사 1회는 조갑녀 나이 9세로 춘향제사 제단 양 옆에 서있는 어린 학습생 대표로 춘향제사에 참가 했고 춘향제사 2~3회는 검무와 화무를 선배들과 함께 남원권번 내에서 추었다. 1934년 춘향제 행사 4회부터 1941년 11회 결혼 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남원 춘향제 행사는 조갑녀의 승무로 막을 열게 되었다.

위 글을 통해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남원 권번의 상황을 몇 가지 알 수 있다. 당시 남원 권번의 권번장은 이백삼이며 권번에는 4~5명의 선생님들이 있었다. 7~8세의 어린 나이의 여자 아이가 권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당시 남원 권번에는 열 살 안팎의 학습생, 즉 동기(童妓)가 30명 정도 되었다. 학습과정은 4년으로 동기들은 예절, 시조, 춤, 기악, 북, 궁도와 같은 과목을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교육 받았다. 조갑녀의 경우 춤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의 지원으로 특별히 이장선(산)을 스승으로 모셔와 궁중무, 검무, 민속무, 승무 등을 배웠다. 이것으로 보아 동기도 경우에 따라 권번의 선생 외에 별도로 스승을 두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기가 기생으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조갑녀는 남원 권번의 선생들 앞에서 승무와 살풀이를 추어 이 시험을 통과하였다. 조갑녀는 10세의 어린 나이에 예기로서 데뷔할 수 있었지만, 당시 남원 권번에는 동기는 30여 명이나 되었으나 예기는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예기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31년에 남원 권번의 기생들과 타 지역 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www.kci.go.kr

제1회 춘향 제사가 모셔졌고, 11회 때까지 조갑녀의 승무로서 춘향제의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남원 권번에 대한 이러한 자료와 비교하여 남원의 여성농악단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권번 문화를 1) 입문과 학습 2) 자격시험과 성년식 '머리 얹기' 3) 공연 활동과 춘향제 참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입문과 학습

조갑녀는 "남원 권번의 소속으로 초창기 남원 춘향제 행사를 진두지휘한 국악 집안" 출신으로서 7~8세의 나이에 자연스럽게 권번에 입학하였다. 조갑녀와 마찬가지로 '국악 집안' 출신의 여아들이 어린 나이에 국악원에 입학하여 판소리를 배우다가 단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여성농악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강도근의 조카인 안숙선과 안옥선 자매, 강백천의 외손녀 이행화, 김영운의 딸 김화자, 주광덕의 딸 주영숙, 전사종의 딸 전금자 등 여성농악단의 간부와 공연자들은 국악 집안으로서 혈연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수양어머니와 수양딸로서 혹은 수양아버지와 수양딸로서 맺어져 이런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단체가 생성 유지되기도 하였다. 칠선옥의 강금순과 강도근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칠선옥의 수양딸들이 주축이 되었던 <춘향…>의 운영 방식이 바로 그러했다.

권번에 입문한 조갑녀는 예절, 시조, 춤, 기악, 북, 궁도와 같은 과목을 4년간의 학습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해방 후에 "간판도 뭣도 없고 바깥에서 알기만 그게 남원국악원", "갈치는 선생, 운영하는 이사, 배우는 학생, 술자리가 되어"[38] 버린다는 당시 국악원의 상황에서 권번의 학습 체계가 엄정하게 지켜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멸시와는 별개로 남원국악원과 여성농악단에서는 여성공연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서 예절과 맵시가 부단히 강조되었다.[39]

---

38) 박재윤 구술자료, 2001. 5. 25,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조사자 : 김선태, 김정헌).

39) "전부다 10대 처녀들, 이쁘고 몸단장도 제대로 해야 되고, 행동거지. 첫째는 예의범절, 이것을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 옛날에는 선후배 관계도 분명해야 되고 00언니나 00언니나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깍듯이 언니라고 해야 돼. 몇 달만 먼저 들어와도 깍듯이 언니라고 해야 돼. 어디 감히 맞먹어. (중략)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권번도 있었고 쟁쟁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으로, 그런 전환기지 우리 시대하고, 그걸 봤기 때문에. 엄하게 하는 걸 알지."

www.kci.go.kr

여성농악단에서 일상생활의 규범보다 더 중요시되었던 것은 역시나 공연 능력이었다. 앞의 인용글에서는 조갑녀를 '명무'로서 조명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서 권번에서의 판소리 학습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원 권번에서는 기초 과목이자 주력 종목으로서 판소리를 가르쳐왔고 이런 전통은 여성농악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 그때 강도근 선생님이 따라 다녔어 단체를. 강도근 선생님하고 갑순이 수양엄마가 형제간이니까.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아침에 일찌감치 애들 깨워서 판소리 가르치고, 씻고, 밥 먹고, 공연허고, 계속 밤에도 판소리, 아침에도 판소리, 판소리를 가르치니까. 그때 다니던 사람들은 판소리 농부가 한 대목씩은 다 했어. 풍물만 헌 게 아니고 소리를 다 했어.[40]

위는 나금추의 구술로, <춘향…>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다닐 때조차도 강도근이 단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판소리를 가르쳤다는 내용이다. 이는 여성농악단 내에서 판소리 학습이 일상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도근은 판소리의 작곡인 작창(作唱)에도 능하여 판소리 「혁명공약가」를 지어 <춘향…> 단원들에게 가르쳤고 5. 16쿠데타 직후 열린 1961년 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농악 공연 이전에 이 곡을 초연하였다. <춘향…>은 이 대회에서 심사위원과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국 순회공연을 다녔는데, 당시 매번 「혁명공약가」로 공연을 시작하였던 덕분에 각 지역의 관청에서 공연 허가를 내는 일이 쉬웠다고 하였다.[41]

권번에서는 판소리 외에도 기악, 무용, 시조 등을 가르쳐 여성공연자로 하여금 가무악을 겸비하도록 하였다. <남원…> 단원 중 장홍도, 배금홍, 강초운 등은 단체가 창설될 당시에 이미 중견 공연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조를 비롯하여 가무악의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이들 이후에 여성농악단에서 시조를 가르쳤다는 제보를 들은 적은 없으나, 단원들은 판소리와 농악을 기본으로 하여 남도잡가, 무용, 토막창극 등을 배우고 연습했다. 단원 중에

(노영숙 구술자료, 2002. 7. 13, 노영숙 자택)

40) 나금추 구술, 서경숙 채록,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7-1호 부안농악 상쇠 보유자 나금추』, 전라북도립국악원, 2011, 40~41쪽.

41) 안숙선 구술자료, 2015. 10. 24, 안숙선 자택.

www.kci.go.kr

서 재능이 출중한 이들은 이 외에도 별도로 줄타기, 가야금, 무용 등을 익히기도 하는 등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에서는 가무악을 두루 섭렵하는 예인을 양성하고 단원으로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2) 자격시험과 성년식 '머리 얹기'

권번에서 어느 정도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예인으로서의 데뷔를 위해 자격시험을 치른다. 앞서 조갑녀의 경우 "남원 권번 선생님들께서 모두 자리를 같이 하신 날", "승무를 추어보라고 하셨고 장삼을 벗고 살풀이장단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추어보라"고 하여 조갑녀는 지시에 따라 춤을 추어 보인 후, 10세의 어린 나이에 예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즉, 조갑녀에게는 남원 권번 선생님들이 자격시험의 심사 위원이었으며, 승무와 살풀이춤이 시험과목이었던 셈이다.

남원에서 6·25를 겪으며 남원의 단골판과 권번 문화를 속속들이 경험하고 조사했던 정범태는 이런 자격시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 동기들은 머리를 얹기 전에도 선배를 따라 요정을 구경하면서 한량들에게 실력을 선보이며 비공식적인 데뷔를 하는데 이때 한량들은 저마다 동기의 품평을 하게 된다. "어허, 목도 제법 트이고 소리가 넉넉하고 소리품도 그만하면 되겠는데 맛이 아직 제 맛을 못 내는구나. 선생의 더늠을 많이 닮았는데 아직 수련이 더 필요하구나. 딴 짓만 안 하고 소리만 열심히 한다면 곧 명창소리를 듣겠구먼(소리의 양과 질이 좋다는 뜻임)."
>
> 그리고 좌중에선 추임새를 넣는다. "얼씨구 좋고…암, 좋지…자, 이번엔 손을 한번 벌려 보아라(춤을 춰 보라는 뜻임)." 그러면 눈치 빠른 고인(악사)들은 춤 반주로 들어간다. 그때 살풀이 한 자락쯤 추어 보이면 춤이 얼마나 들어있나 좌중에선 알아본다. 춤을 잘 추게 되면 좌중에선 종합 품평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쏟아진다. "삼합을 갖추었구나. 얼굴 잘 생겨서 한 합이요, 소리 잘해서 이합이요, 거기다 춤까지 곁들이니 삼합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정말 기대해 볼만한 재목이구나."[42]

위 글에 따르면 한량들 또한 권번의 선생들과 마찬가지로 동기의 자격심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량들은 판소리와 춤으로 놀음을 하는 동

42) 정범태, 「당골판」, 『샤머니즘 연구』 3집,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104쪽.

www.kci.go.kr

기의 모습을 품평하였는데, 이들의 평가에 따라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었다. 이 시험에서 탈락한 동기는 예기로서 공식 데뷔를 하지 못하고 연습생으로서 다시 학습에 매진해야 했다.

여성농악의 단원들은 이와는 다르게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실력만 갖추면 바로 공연에 투입되었다. 농악은 다수의 공연자가 단체 연기를 보여주는 종목으로 구성원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가 개인 간 기량의 차이를 보완하고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악은 중견과 신입의 공연자가 일정한 위계 속에서 한 공연 내에서 조화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성농악 단원 중에서도 단체가 활동을 쉬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요정으로 놀음을 나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럴 때는 이들 또한 권번에서 시험을 치르고 놀음의 자격을 얻었다.

> 부산 공연 갔을 때 00언니가 거기서 떨어져서 정착을 해버렸거든. 열네 살 좀 못 됐을 거야.
>
> (공연하기 위해서 떨어지신 거예요?)
>
> 공연하고 단체는 거기서 떠나고 언니는 떨어지고 거기서 나도 떨어지고 나는 다시 남원에 왔다가 단체 나가고 그랬는데, 언니는 부산에 동래 권번에 있었다고. 권번에 자기가 시험을 보러 가면은 그때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기를 보는 거야. 심사 선생님들하고 국악원장 선생님하고 계시면 한 사람씩 들어와서 창이면 창, 무용이면 무용. 자기 특기를 기술을 보이고 합격이 되면 기생의 자격이 있으니까 술집에 나가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가는 거야. 근데 너는 안 된다고 하면 자격 미달이야. 그럼 다시 일 년 동안 공부를 해. 공부를 해서 일 년 뒤에 다시 시험을 봐. 봐서 합격이 돼야 나가는 거야.[43]

위 인용은 1968,9년경 <춘향…>의 한 단원이 부산의 요정에 취업하기 위해 동래 권번에서 시험을 봤다는 내용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여성농악의 흥행세가 꺾이자 <춘향…>은 부산에서 단체를 해산하였고 <춘향…>의 간부와 단원 일부는 부산에 정착하였다.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던 당시에 부산에는 동래 권번을 중심으로 놀음판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강백천 일가를

43) 노영숙 구술자료, 2002. 7. 13, 노영숙 자택.

www.kci.go.kr

비롯하여 남원의 많은 국악예술인들이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한 여성 단원은 부산의 요정에 취업하기 위해 동래 권번의 선생들과 국악원장의 심사 하에서 판소리나 무용으로 시험을 치렀던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들이 별 수 없이 답습해온 권번의 관행 중 하나가 '머리 얹기'였다. '머리 얹기'는 권번 동기들의 성년식이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판소리를 배우려면 월사금을 내면서 국악원에서 학습을 하는데, 권번 시절에는 이런 어린 학습생을 동기(童妓)라고 불렀다. 이 동기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한 후에 기생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머리를 얹어야 했다.[44] 그런데 남원국악원과 칠선옥은 이러한 권번의 문화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원…>과 <춘향…>에서도 이와 같은 머리 얹기 풍습이 이어지고 있었다.

> 머리 얹힐 사람 얹히고, 다 우리 세대는 그랬는데 내가 강 선생님한테 항의해 가지고, 내 친구도 머리 얹히러 부산까지 왔어. 내가 못하게 했어. 우리 세대는 그런 것 폐지해 주세요. 마주 마주 만나서 살고 싶지 누가 어떤 늙은 놈한테 어쩐다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게 거의 없어.
>
> (전주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원 단체에는 머리 얹는 게 있더라 하고.)
>
> 남원에가 옛날부터 쭉 그래왔고. 전통적으로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우리 또래에서부터는 없게 됐지. 그건 구세대 이야기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때 당시는 어른들이 얹어야 한다고 하면 얹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머리를 얹어서 생활을 조달을 받고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한 모든 것, 머리 얹히면 그냥 얹혀? 돈 있는 사람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줘야 하잖아. 그 집에 대한 모든 생활 책임을 져 줘야지. 그 사람이 커가는 것 공부를 하면 다 대줘야 하잖아. 그 책임으로 머리를 얹어주는 거야. [45]

---

44) "동기들은 학습을 마치면 권세가들 중 적당한 인물을 골라 머리를 얹는다. 이때 머리를 얹힐 권세가는 동기의 친정집에 논밭 열댓 마지기는 사주어야 하고 금가락지·금팔지·떨잠 등 장신구와 먹감나무로 만든 이거리장이나 괴목장 등 가구로 방안 치장을 해주어야 하고, 동기가 새 살림을 나는데 필요한 집과 가재도구 일체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선생에게 신세진 학습비도 한 몫 떼 주어야 한다." (정범태, 「당골판」, 『샤머니즘연구』 3집,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103~104쪽.)

45) 노영숙 구술자료, 2002. 7. 13, 노영숙 자택

www.kci.go.kr

동기가 기생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실력 또한 갖추게 되면 학습생으로서의 신분을 벗고 한명의 기생으로서 독립하게 하는데 이때 치르는 통과의례가 '머리 얹기'이다. 권번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남성을 물색하여 스폰서(sponsor)로 삼고 동기의 머리를 얹게 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 기생은 머리를 얹어준 남성에게 예속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권번이 해체되고 남원국악원이 만들어진 지 십 수 년이 지난 때인 1967년쯤에도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에서는 '머리 얹기'의 관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단원들은 '머리 얹기'를 "그건 구세대 이야기"라며 거부하였다. 그러나 어린 소녀였던 이들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머리 얹기'가 구시대의 인습임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3) 공연 활동과 춘향제 참가

남원국악원과 칠선옥에서는 권번의 습속을 그대로 이어 공연 매니지먼트와 교육을 하면서, 그 한 갈래 흥행사업으로서 여성농악단을 창단하여 활동하였다. 여성농악단이 활동을 쉬는 동안에는 권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보고 '머리 얹기'를 치른 숙련된 단원들은 요정이나 잔칫집으로 놀음을 다녔고 기량이 서툴고 어린 단원들은 국악원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였다.

이런 일상적인 공연 활동 외에도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들은 춘향 제사[46]를 계승함으로써 남원 권번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2015년에 85회를 맞이한 춘향제는 1931년 춘향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춘향제의 창설자는 권번장 이백삼과 이현순, 최봉선이었다. 최봉선은 남원 권번 1기 졸업생으로서 남원에서 '부산관'이라는 요릿집을 운영하였다. 그녀는 평양 권번, 진주 권번과 협력하여 1931년에 춘향 사당을 지었고 세 권번의 기생들이 참석하여 제사를 모시기 시작하여 이것이 제1회 춘향제가 되었다. 춘향제사에서는 비용을 많이 낸 순서에 따라 평양 권번이 초헌자, 진주 권번이 아헌자, 마지막으로 남원 권번이 종헌자가 되었다. 허구의 인물일망정 춘향을 남원 사람이라 여기는 지역 정서 속에서 최봉선은 타 지역 사람이 춘향 제사

46) 춘향 제사에 관한 내용은 박재윤 구술자료(2002. 5. 31, 남원국립민속국악원)에 따라 기술한 것이다.

www.kci.go.kr

의 초헌자가 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제사답을 사들였고 이로써 제사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 후로는 다른 권번에서 제사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춘향 제사의 모든 의식을 남원 권번에서 주도하게 되었다. 춘향 제사의 주체가 권번의 기생들이었기 때문에 2회부터는 의례 속에 자연스레 판소리 춘향가 공연이 추가되었고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춘향 제사는 점차 지역 축제의 형태를 띠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몇 가지 점이 주목된다. 1930년대 남원 권번 출신의 여성이 춘향 사당을 지을만한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 남원 권번이 타 지역의 권번들과 교류를 하였다는 점,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겠지만 남원 권번이 한반도에서 3대 권번에 속했다는 점, 춘향 제사와 함께 판소리 공연을 개최할만한 기획력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남원 권번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권번이 제도적으로 없어지고 난 후에 춘향 제사는 남원국악원을 중심으로 계승되었고, 여기에 여성농악 단원들이 동원되었다. 다음 사진은 1960년대 중반 춘향제의 한 장면으로 <춘향…> 단원이었던 노영숙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춘향제에서 춘향 사당에 절을 하는 남원국악원생

노영숙에 의하면 사진 속에서 색동저고리를 입고 마이크를 쥔 여성과 춘향 사당에 절을 하는 여성들 모두 여성농악 단원이자 남원국악원 원생들로 노영

www.kci.go.kr

숙 또한 절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끼어 있었다고 하였다. 이때 남원을 근거지로 하는 여성농악단은 <춘향…>뿐이었는데, 단체가 순회공연을 쉴 때에는 단원들은 남원으로 돌아와 남원국악원에서 재직하는 강도근에게서는 판소리와 창극을 배우고 칠선옥에서는 가야금과 병창을 배우며 공연 능력을 연마하였다. 그러면서 권번의 전통을 이어 남원국악원에서 주도해온 춘향제에 동원되어 춘향 제사의 주역을 맡아 하였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농악은 남원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마을 농악과는 다르게 권번 문화를 중심으로 생성되고 전개되었다.

남원에서 처음 발생한 여성농악에는 '권번'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였다. 권번은 일상적으로는 크게 두 갈래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하나는 소속 연예인으로서의 기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알선하는 매니지먼트 일과 다른 하나는 공연예술의 교육기관으로서 학습생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해방 후 설립된 남원국악원은 공식적으로는 공연예술의 교육기관임을 표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남원 지역의 유흥 사업과 맞물려 공연 매니지먼트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매니지먼트 수익이 줄어들자 운영비를 벌기 위해 별도로 기획된 공연단으로서 여성농악단을 창단하고 운영하였던 것이다.

남원국악원에서 그러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작동되었다. 그들은 실질적인 실무 주체인 국악원장과 예능 종목의 선생들, '기생'으로 인식되어 왔던 국악원 소속 공연자들, 공연자들의 활동 장이었던 요정의 이용자이자 국악원을 후원하고 운영에 개입했던 후원자들로 나뉠 수 있다.

여성농악은 권번이 '국악원'이 되어야만 하는 내외적인 변화 속에서 기생 매니지먼트의 일이 줄어들자 국악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마련되었다. 당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였던 남원의 문화 리더들은 지역 정체성 구축의 일환으로 국악원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들이 바로 국악원의 후원자들이었다. 직업적 정체성의 유지와 생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공연 실기자들은 국악원의 원장과 선생을 맡았으며 이들이 국악

www.kci.go.kr

원의 여성공연자들을 교육하고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런 움직임의 결과로서 남원국악원에서 <남원여성농악단>이 만들어졌고, 이 단체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면서 호지부지 되었던 권번의 조직이 국악원으로 개편되어 안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남원국악원은 차차 공연 매니지먼트 일을 줄여가며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국악원의 방향을 정립하였고, 차후 시립 단체를 거쳐 현재의 국립민속국악원으로 발전해갔다.

<남원여성농악단>과는 달리 <춘향여성농악단>은 남원국악원과 교류하거나 때로는 남원국악원에서 직접 활동하기도 했던 강금순, 강도근, 강백천 등의 빼어난 공연 능력을 갖춘 실기자들이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였다. <춘향여성농악단>은 공공성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흥행을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흥행 면에서 <남원…>과 경쟁 구도를 이룰 때도 있었지만 단체의 핵심 구성원이 남원 출신들이었고 이 단체 또한 남원이라는 지역사회를 근거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남원국악원과 함께 남원 권번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들은 교육과 공연 활동 면에서 권번의 문화적 습속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문 과정, 학습 종목과 교육 절차 면에서는 권번에서 동기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남원 권번에서 처음 시작했던 춘향 제사의 주역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농악의 단원들이 남원 권번의 문화적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번'은 전근대 신분제의 틀 속에서 성적 욕망의 대상인 '기생'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예술 활동과 유흥 산업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근현대의 가치관과는 배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머리 얹기'라는 성년의식의 답습이었다.

여성농악에 배어 있는 이런 권번 문화로 인해 연구자와 공연자, 대중들은 그동안 여성농악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즉, 예술전문가로서 보여주는 수준 높은 공연 역량은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한편, 때에 따라서는 권번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여성농악과 그 공연자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였던 것이다. 이런 양가적 인식 때문에 여성농악은 농악의 역사에서 한동안 삭제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이 글은 여성농악에 대한 양가적 인식을 지적하고 농악의 역사에서 여성농악이 정당하게 평가될

www.kci.go.kr

수 있도록 좌표를 찾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서 수행되었다.

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 예술집단으로서의 여성농악단의 면모를 규명하고 이들의 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권번 문화뿐 아니라 전북 세습무계의 무(巫)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후속 작업으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공연 역량이 어떻게 학습되고 훈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공연지식의 학습과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김정화 구술자료, 2015. 10. 31, 김정화 자택.

나금추 구술, 서경숙 채록,『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7-1호 부안농악 상쇠 보유자 나금추』, 전라북도립국악원, 2011.

노영숙 구술자료, 2002. 7. 13, 노영숙 자택.

박복례 구술자료, 2015. 7. 30, 박복례 자택, (조사자 : 노영숙).

박재윤 구술자료, 2001. 5. 25,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조사자 : 김선태, 김정헌).

박재윤 구술자료, 2002. 5. 31, 남원국립민속국악원.

배분순 구술자료, 2015. 8. 9, 배분순 자택, (조사자 : 노영숙).

안숙선 구술자료, 2015. 10. 24, 안숙선 자택.

유명철 구술자료, 2001. 5. 15, 남원농악전수관, (조사자 : 김선태, 김정헌).

유명철 구술자료, 2002. 10. 8, 남원농악전수관.

『이야기로 듣는 남원국악사』, 국립민속국악원, 2008.

2. 논저

권도희,「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19~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한국국악연구』38집, 한국국악학회, 2005.

권은영,『여성농악단 연구』, 전주: 신아출판사, 2004.

김익두·전정구·최동현·최상화,『정읍지역 민속예능』,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2.

신현규,『기생 이야기 - 일제시대의 대중스타』, 살림, 2007.

안 위베르스펠트, 신현숙·유효숙 옮김,『관객의 학교 - 공연기호학』, 아카넷, 2012.

안숙선,「나의 이력서-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2」,『전북일보』, 2005. 4. 11.

이경민,『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카이브북스, 2005.

www.kci.go.kr

이규원·정범태,『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 사람』, 현암사, 1995.
이영금·이영배,『전라도 윗녘 사람들의 무풍속』, 민속원, 2012.
이영배,「여성농악의 문화적 의미망과 위상 재인식」,『한국민속학』61집, 한국민속학회, 2015.
임유경,「명인 조갑녀의 무용 생애사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1. 2.
전북예총사 편찬위원회,『전북예총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회, 2000.
정범태,「당골판」,『샤머니즘 연구』3집,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3. 참고 사이트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전북일보 홈페이지 http://www.jjan.kr/

www.kci.go.kr

【국문초록】

남원에서 처음 발생한 여성농악에는 '권번'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였다. 권번은 기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알선하는 매니지먼트 일과 학습생들을 교육하는 공연예술 교육기관의 일을 맡아 하였다. 해방 후 남원 문화계의 리더들은 권번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남원국악원을 설립하였다. 남원국악원은 공식적으로는 공연예술의 교육기관임을 표방하고 강조함으로써 유흥 사업과 결부되어 있는 권번의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매니지먼트 수익이 줄어들자 남원국악원에서는 운영비를 벌기 위해 여성농악단을 별도로 기획하여 창단하고 운영하였던 것이다.

남원의 여성농악 단체들은 교육과 공연 활동 면에서 권번의 문화적 습속을 따르고 있었다. 입문 과정, 학습 종목과 교육 절차 면에서는 권번에서 동기(童妓)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남원 권번에서 처음 시작했던 춘향제의 주역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농악이 권번의 문화적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성농악은 남원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마을 농악과는 다르게 권번 문화를 배경으로 생성되고 전개되었다.

주제어: 여성농악, 권번, 기생, 남원국악원, 춘향제, 대중문화

www.kci.go.kr

【Abstracts】

The Birth of Yeoseong-nongak and the Culture of Gwonbeon in Namwon

Kwon Eun-young

Yeoseong-nongak, which originated in Namwon, had the cultural background of Gwonbeon. Gwonbeon served the role of a management company that supports and finds jobs for Gisaeng, Korean geisha, and was an educational organization that taught students performing ar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cultural leaders of Namwon reorganized the operational system of Gwonbeon and established Namwon Gukak Center. This newly built center publicly claimed that it is an educational organization for performing art and tried to discard the negative image of Gwonbeon related to entertainment industry. During the process, the profit from management business decreased, so in order to make money for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Namwon Gukak Center organized and operated the Yeoseong-nongak bands, female musicians who performed traditional farmers' music.

Yeoseong-nongak bands in Namwon followed the cultural conventions of Gwonbeon in terms of education and performanc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process, subjects of study, and educational procedure, the

www.kci.go.kr

methods used in Gwonbeon for teaching young gisaengs were adopted. Also, by participating in Chunhyang Festival, which originated from the Gwonbeon of Namwon, Yeoseong-nongak bands publically showed that they were under the cultural influence of Gwonbeon.

As seen from above, Yeoseong-nongak was born in Namwon, but unlike village nongak, it was created and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ulture of Gwonbeon.

Key words: Yeoseong-nongak, Gwonbeon, Gisaeng, Namwon Gukak Center, Chunhyang Festival, popular culture

이 논문은 2015년 10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1월 13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